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계기로 평가된다. 금번 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6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성과와 의의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금번 장관급회담은 2단계 제4차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점이 돋보인다. 북측 핵심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핵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제4차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타결 짓고 평화체제 협의로 넘어가야 된다는 우리 측 입장에 대해 북측도 동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6자회담 합의 도출에 기여할 수 있었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에 대한 남북간 공감대를 한층 심화시켰다. 금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키로 하고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인식을 같이한 것은 앞으로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는 우리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남북간 협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셋째, 남북간 새로운 화해·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방향이 설정되었다. 남과 북은 '제2의 6.15 시대'에 걸맞게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민족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 촉진, 경제협력의 장애 제거, 투자 및 유무상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교역액이 2000년 당시 4억 3천만 달러 수준에서, 올해에는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남북경협 추진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진전과 함께 국군포로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한 점이 금번 회담의 특별한 성과로 꼽힌다. 지금까지 11차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으로 남북 총 11,000명이 상봉하였다. 특히 우리 측은 제6차 적십자회담(8.23~25)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국군포로·남북자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국군포로문제("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를 계속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다섯째, 자칫 사업의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금강산관광 문제의 해결도 금번 회담의 또 하나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발생한 금강산관광 문제의 중재·조정을 위해 북측 핵심관계자와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남북장관급회담의 필요성과 의의를 한층 빛내었다.

우리 민족의 고귀한 유산이자 얼인 말과 글을 집대성하는 작업은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인 바, 이에 남과 북은 「겨레말큰사전」의 공동 편찬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북 공동사업의 대상과 영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한반도 평화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간 핵심 현안인 정치·군사 분야를 포함하여, 그동안 북한이 금기시했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까지 제기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장관급회담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6.15 공동선언 이후 5년 동안 경제 및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남북간 화해·협력의 틀은 상당히 갖추어졌으나 정치·군사 부문에서의 진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금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은 금번 회담의 성과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문제와 정치·군사적 현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